『三國史記』 車騎 條 기록으로 보는 통일신라시대 車馬의 신분별 금제 고찰*

김 수 진** · 이 은 주***

1. 머리말
2.『삼국사기』 거기 조 수레 기록 분석
  1) 통일신라시대 수레의 형태와 구성
  2) 수레의 신분별 허용 재료
3.『삼국사기』 거기 조 마구 기록 분석
  1) 통일신라시대 마구의 형태와 구성
  2) 마구의 신분별 허용 재료
4. 수레·마구와 복식의 신분별 금제 고찰
  1) 수레·마구와 복식의 신분별 재료 비교
  2) 신분별 금제를 통한 통일신라시대 사회상 고찰
5. 맺음말

1. 머리말

고대 동양문화권에서 禮의 본질은 上下尊卑의 구별에 있다[1]고 여겼다. 만물의 서열을 구별하는 예의 본질은 고대 사회에서 修身과 治國에 적용되어 사회의 위계와 질서를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예의 실질적 구현은 의복과 기물 등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복식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석사과정. 문화산업연구소 연구원(주저자).
***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교신저자).

1)『禮記』「樂記」第19 "樂者天地之和也 禮者天地之序也 和故百物皆化 序故羣物皆別 樂由天作 禮以地制."

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졌다.

신라 흥덕왕 9년(834)에 의복과 기물 등에 대한 금제가 공포되었다. 『三國史記』[2] 「雜志」 2에서 금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3] 신분에 따라 色服·車騎·器用·屋舍의 종류와 재료에 차등을 두었다. 흥덕왕의 금제 반포는 사치로 인해 파괴된 상하존비 질서를 재정립함에 있었다.[4] 이는 금제를 통해 신분 간 계급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현재까지는 『삼국사기』「잡지」 2의 색복을 바탕으로 복식 금제를 통한 당시의 문화·정치·사회상을 밝히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나,[5] 거기·기용·옥사의 내용은 연구에서 배제된 경향이 있었다. 물질문화 전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색복·거기·기용·옥사의 내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각 세부 분야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을 상호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신분에 따른 禮의 구별을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단연 車馬와 복식이라 할 수 있다. 중국 正史 輿服志[6]에서는 거마와 복식에 차이를 두는 것을 공덕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밝혔으며[7] 여복지의 시작을 거마와 복식 순으로 구성하

2) 본 연구에서 참고한 『三國史記』의 원전은 正德本(1512)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역주본은 다음의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병도, 1977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09 『삼국사기』 http://db.history.go.kr.

3) 『三國史記』 卷33, 「雜志」 第2 色服·車騎·器用·屋舍.

4) 『三國史記』 卷33, 「雜志」 第2 色服 "人有上下, 位有尊卑, 名例不同, 衣服亦異, 俗漸澆薄, 民競奢華, 只尙異物之珍寄, 却嫌土產之鄙野, 禮數失於逼僭, 風俗至於陵夷, 敢率舊章, 以申明命, 苟或故犯, 國有常刑."

5) 金東旭, 1971 「興德王 服飾 禁制의 硏究: 新羅末期 服飾 再構를 中心으로」 『東洋學』 1; 金東旭, 1981 「三國史記 色服條의 新硏究」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 金鎭玖, 1998 「三國史記의 服飾硏究Ⅱ: 色服의 衣服을 中心으로」 『복식문화연구』 6(2); 전혜숙, 1998 「新羅統一期 政治的 狀況과 服飾硏究: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난 服飾實態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6(2); 전현실·강순제, 2013 「흥덕왕 복식제도 원전 고찰 및 분석」 『服飾』 63(5).

6) 중국 정사의 『後漢書』, 『晉書』, 『南齊書』, 『舊唐書』, 『新唐書』에서 여복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7) 『書經(尙書)』 「虞書」, 舜典 "五載一巡守 羣后四朝 敷奏以言 明試以功 車服以庸."

였다. 이를 통해 거마와 복식이 동시에 禮儀 제도의 표상임을 알 수 있다. 예의 제도는 물질문화 측면에서 신라 사회구조의 특징인 골품제를 가장 잘 드러내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연구한다면 당시 신라 사회의 모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삼국사기』중 예의 제도로서 대표성을 지닌 車騎 條의 거마 기록 중심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신분별 차등을 분석하고, 이를 色服 條의 복식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수레와 마구에 대하여 문헌과 회화 및 유물 자료를 통해 형태와 구성 물품을 살펴보고자 하며 신분에 따른 물품의 사용 재료를 복식과 대응시켜 비교하려고 한다.

금제의 상호 비교 분석으로 도출한 결과를 통해 거마와 복식의 예의 제도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고, 흥덕왕의 금제가 반포된 신라 하대의 사회적 배경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한다. 거마와 복식의 통합적 분석은 당대 문화와 사회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삼국사기』거기 조 수레 기록 분석

1) 통일신라시대 수레의 형태와 구성

『삼국사기』거기[8] 조에는 신분에 따른 수레의 금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통해 수레 제도를 짐작할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분화한 거마 제도의 예시는『後漢書』「여복지」에서 처음 확인된다.[9]「여복지」에는 수레의 기원, 탑승자의 신분과 목적에 따른 수레의 형태와 구성, 수레의 구성품 및 수레를 끄는 말의 수와 마구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통일신라시대 수레의 형태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세부 형태를 확인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수레의 재료를 논하기에 앞서 당시 수레의 형태 및 구성에 대한

8)『三國史記』卷33,「雜志」第2 車騎.

9)『後漢書』志 第29「輿服上」.

이해가 필요하다. 신라인이 사용한 수레의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중국의 유물 및 회화 자료를 활용하여 유추해볼 수 있다. 거기 조 수레 금제 물품 중 '牛勒(소 굴레)'을 통해 신라 하대에 일상적으로 사용된 수레가 牛車(소가 끄는 수레)임을 알 수 있다. 중국 魏晉南北朝(221~589) 이래 唐代 초까지도 귀족층 사이에서 소가 끄는 고급형 수레인 우거가 유행하여, 中唐 이전까지 귀족 부녀자들 또한 우거를 이용하였다.[10]

〈그림 1〉[11]은 4세기 중반 고구려 안악 3호분 앞칸 동벽에 그려진 그림으로 주인이 우거를 타고 있음이 확인된다. 5세기 후반의 고구려 쌍영총 연도 동벽에도 소가 끄는 우거(그림 2)[12]가 그려져 있다. 한편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제25호분에서는 〈그림 3〉[13]과 같이 신라의 수레형 토기(3~4세기경)가 출토되어 수레의 부분적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14] 신라의 수레형 토기와 동시대 고구려 벽화에서 나타나는 수레의 형태는 중국 남북조시대·수대·당대의 우거와 유사하다. 또한 〈그림 4〉는 7세기 중반 경주 황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신라의 토용으로,[15] 굴레를 두른 소와 수레바퀴 형상이 함께 출토되어 당시 우거의 사용을 짐작하게 한다.

남북조시대부터 당대까지는 이러한 우거의 형상이 조각과 회화에 다수 나타난다. 당시의 우거 유행은 중국과 한반도의 공통적인 양상으로 보인다. 남북조시대 유행한 우거의 복원도(그림 5)[16]에도 상부에 차양 형식의 덮개[幰]가 있어 〈그

10) 孫机, 2016『載馳載驅: 中國古代車馬文化』, 上海: 上海古籍, 129면.

11) 전쟁기념관 전시자료(연구자 촬영).

12) 金元龍, 1980『壁畫』, 同和出版社, 57면.

13) 수레형 토기, 검색일 2020. 12.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han.gl/XM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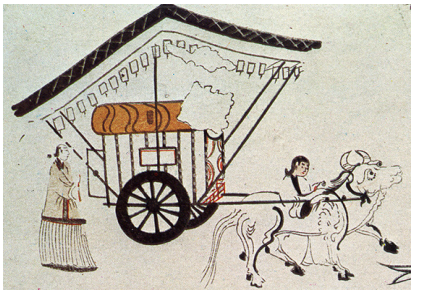
14) 金基雄, 1981「三國史記의 車騎〈新羅〉條考: 古墳壁畵와 出土遺物을 中心으로」『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2(1).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제25호분의 신라 수레형 토기(3~4세기경)와 동일한 형태의 수레가 용강 대안리 1호분 고구려 고분벽화(5세기 후반)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통해 신라 수레와 고구려 수레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15) 신라 황성동 고분 출토 남자 토용은 복두와 단령 차림으로 동시대 당나라 남자 토용의 복식과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황성동 고분 토용은 신라가 당으로부터 관복을 도입한 648년 이후로 편년할 수 있다.

16) 劉永華, 2013『中國古代車輿馬具』,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32면.

림 2〉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산서 예천 당소릉 이진묘 벽화 牛車出行圖(그림 6)[17] 역시 유사한 구조이다. 벽화 외에 산서 서안 당삼채 牛車俑,[18] 섬서 함양 16국 묘 우거용[19]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그림 1〉 고구려 안악 3호분 앞칸 동벽 우거 (개방형)



〈그림 2〉 고구려 쌍영총 연도 동벽 우거 (폐쇄형)

〈그림 3〉 신라 계림로 제25호분, 수레형 토기 (4세기)

〈그림 4〉 신라 황성동 고분, 남녀 · 마소 · 수레바퀴 토용 (7세기 중반)

17) 北朝与隋唐藝術里的胡人發型与"剪頭胡雛": 牛車出行圖 陝西礼泉唐李震墓出土, 검색일 2021. 5. 7. 澎湃新聞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1028527.

18) 北朝与隋唐藝術里的胡人發型与"剪頭胡雛": 胡人駕牛車俑 陝西唐三彩博物館藏, 검색일 2021. 5. 7. 澎湃新聞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1028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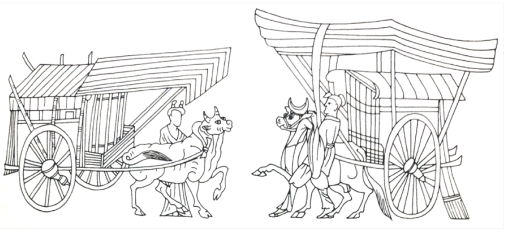
19) 咸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4「咸陽平陵十六國墓清理簡報」『文物』 8, 22면.

〈그림 5〉 남북조시대 우거 복원도
(劉永華, 2013: 232)

〈그림 6〉 당대 우거출행도
(중국 산서 예천 당소릉)

선행연구[20]에 따르면 삼국시대 수레의 형태는 개방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방이 트인 개방형 수레와 가마방이 있는 폐쇄형 수레이다. 고구려 4세기 중반 안악 3호분 벽화(그림 7)[21]에서 개방형 수레와 폐쇄형 수레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이 개방형 수레를 사용하고, 여성이 폐쇄형 수레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남녀 모두 말을 타고 다니는 개방적인 사회였다는 점, 거기 조 수레 금제 기록에 남녀 구분이 없다는 점, 동시대 중국의 유물 및 기록화에 폐쇄형 수레가 다수 나타난다는 점, 중국 당대까지 이어지는 우거의 유행 요인 중 하나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된 몸가짐의 자유로움에 있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개방형 수레와 폐쇄형 수레의 구분은 날씨나 계절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우거의 사용 형식이 신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변용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7〉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 차고와 수레 (4세기 중반, 개방형 통헌거 · 폐쇄형 편헌거)



〈그림 8〉 북위 석각화의 편헌우거 · 통헌우거
(孫机, 2013: 363)

20) 金基雄, 앞의 논문, 23-25면.

21) 안악 3호분 고구려 벽화, 검색일 2020. 12. 7. 동북아역사넷 https://han.gl/FVkW6.

수레는 상부의 幰(처마, 차양) 형식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수레 상부의 전·후면 전체에 헌이 있는 通幰車[22]와 수레 상부의 전면에만 헌이 있는 偏幰車로 구분된다. 『隋書』「禮儀志」에는 1품에서 7품까지 사용 가능한 수레와 소[牛]의 장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1품은 油色朱絡網車, 2품과 3품은 통헌거, 4품 이하에서 7품 이상은 편헌거를 탈 수 있었다.[23] 또한 『舊唐書』 여복지와 『新唐書』 거복지에는 1품에서 3품까지 絡網이 있는 통헌거를 타고, 4품은 편헌거를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24] 이를 통해 통헌거가 편헌거에 비해 더 높은 신분의 탑승자가 사용하는 수레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25]은 北魏 석각화에서 나타나는 통헌거와 편헌거의 형태이다. 통일신라시대의 경우 『삼국사기』 거기 조의 수레 금제 물품에서 '前後幰'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 하대의 귀족이 사용한 수레는 통헌거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통헌거·편헌거와 함께 絡網의 기록이 등장한다. 수대에는 1품만이 우거에 낙망을 사용할 수 있었고, 당대에는 1~3품까지만 우거에 낙망을 사용할 수 있었다. 낙망은 최상위층의 우거에만 사용 가능했으며, 신분에 따라 낙망 색상의 차이를 두었다. 낙망의 형태는 돈황 막고굴 수대 벽화 〈그림 9〉[26]에서 살펴볼 수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세 대의 우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개방형 통헌거의 헌을 그물과 같은 낙망으로 감싸고 있으며 낙망의 끝에는 장식물을 늘어뜨렸다. 신라 하대 귀족의 우거에도 유사한 낙망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2) 『晉書』 卷25, 志15 「輿服」 中朝大駕鹵簿 "通幰車, 駕牛, 猶如今犢車制, 但擧其幰通覆車上也. 諸王三公並乘之."

23) 『隋書』 卷10, 志第5 「禮儀」 5 輿輦 後魏 "正從第一品執事官散官及儀同三司諸公主, 得乘油色朱絡網車, 車牛飾得用金塗及純銀. 二品三品得乘卷通幰車, 車牛飾用金塗. 四品已下, 七品已上, 得乘偏幰車, 車牛飾用銅."

24) 『舊唐書』 卷45, 志第25 「輿服」 "王公已下車輅. 自餘一品乘白銅飾犢車, 青通幰, 朱裏油纁, 朱絲絡網, 駕以牛. 二品已下去油纁絡網, 四品青偏幰."; 『新唐書』 卷24, 志第14 「車服」 "一品乘白銅飾犢車, 青油纁, 朱里通幰, 朱絲絡網. 二品以下雲油纁絡網. 四品有青偏幰."

25) 孫机, 2013 『中國古輿服論叢』,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363면.

26) 위의 책, 363면; 莫高窟420窟, 검색일 2021. 5. 7. 每日頭條 https://kknews.cc/zh-sg/culture/oqmbo66.html.

〈그림 9〉 돈황 막고굴 420굴 수대 벽화와 낙망 우거 모사도

2) 수레의 신분별 허용 재료

『삼국사기』 거기 조에 나타난 수레의 금제 대상 물품은 車材, 褥子, 坐子, 幰, 絡網, 粧表, 勒, 鞅, 環, 步搖이다. 수레의 재료 6종(거재, 욕자, 좌자, 헌, 낙망, 장표)과 수레와 소의 장식 재료 4종(늑, 앙, 환, 보요)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금제 기록은 신분에 따른 허용 재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王室[27]에서 사용한 재료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기에 표에 추가하였다.

거기 조의 기록에 따르면 수레 금제에는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 또한 사두품 이하에 대한 금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두품·평인은 교통수단으로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레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 중에서도 금제의 기록이 없는 물품이 있는데, 거재를 제외한 나머지 좌자, 낙망, 장표, 보요는 해당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위의 신분이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無緣', '無勒'과 같이 해당 물품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어서 금제 미표기의 의미 해석

27) 통일신라시대 색복 등에 대한 금령이 공포된 흥덕왕 9년(834)은 진골 왕통의 내물왕계 왕실이 지배한 시기이다. 제29대 태종무열왕(재위: 654~661년)은 진골로 왕위에 오른 첫 번째 왕으로서, 성골은 소멸하였고 대신 무열왕 직계의 중대 왕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聖而'라는 새로운 골품이 출현하였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890년 이후 건립된 성주사 郎慧和尙塔碑에는 國有五品이라고 하여 성이-진골-6두품-5두품-4두품이 언급된다. 김창석, 2019「신라 중·하대 골품제의 변화상과 그 배경」『한국사연구』115, 139면.

에 대한 향후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색복 조를 통해 9세기 통일신라 시대 직물의 등급을 밝힌 선행연구(1998)[28]에 따르면 직물의 가치는 罽·繡·錦·羅, 綾, 紗, 絁, 絹, 綿紬, 布의 순이다. 이 자료는 수레나 마구에 사용된 직물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표 1〉 신분별 가용 수레 재료(『三國史記』 卷33, 「雜志」 2 車騎)

	王室	眞骨	六頭品	五頭品
車材	• 紫檀 · 沉香 • 玳瑁 · 金 · 銀 · 玉	• 왕실 사용 재료 이외의 재료	• 기록 없음	• 기록 없음
褥子	• 罽 · 繡 · 錦 · 羅 • 二重	• 綾 · 絹 이하 • 二重	• 絁 · 絹 이하	• 氈 · 布
坐子	• 罽 · 繡 · 錦 · 羅 · 細錦 · 綾 • 緣: 罽 · 繡 · 錦 · 羅 · 細錦 · 綾	• 細錦 · 二色綾 이하 • 緣: 錦 이하	• 絁 · 絹 · 布 • 無緣	• 기록 없음
前後幰	• 罽 · 繡 · 錦 · 羅 · 綾 • 緣: 罽 · 繡 · 錦 · 羅 · 綾 • 色: 제한 없음	• 小文綾 · 紗 · 絁 이하 • 色: 深青 · 碧 · 紫 · 紫粉 • 緣: 小文綾 · 紗 · 絁 이하	• 진골 이상의 귀인 행렬 따를 때는 없음 • 본인의 행차 시에는 竹簾 · 莞席 사용 • 緣: 絁 · 絹 이하	• 竹簾 · 莞席 • 緣: 用皮布
絡網	• 제한 없음	• 糸 · 麻 • 色: 紅 · 緋 · 翠 · 碧	• 布 • 色: 赤 · 青	• 미사용
粧表	• 제한 없음	• 絹 · 布 • 色: 紅 · 緋 · 青 · 縹	• 기록 없음	• 기록 없음
牛勒	• 綾 · 紗 이상	• 絁 · 絹 · 布	• 布	• 無勒
靷	• 綾 · 紗 이상	• 絁 · 絹 · 布	• 布	• 麻
環	• 金 · 銀 · 鍮石	• 鍮 · 銅鐵	• 鍮 · 銅鐵	• 水鐵
步搖	• 金 · 銀 · 鍮石	• 鍮 · 銅鐵	• 미사용	• 미사용

(1) 거재

車材는 수레를 이루는 주재료로, 목재와 그 위에 더해지는 장식의 재료이다. 진골의 거재로는 紫檀과 沉香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장식으로는 玳瑁·金·銀·

28) 金鎭玖, 1998「三國史記의 服飾硏究 Ⅲ: 色服의 織物을 中心으로」『복식문화연구』 6(2), 186면.

玉을 사용할 수 없었다. 진골에게 금한 재료는 당시 왕실에서 사용하는 재료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왕실의 수레는 자단이나 침향의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대모와 금·은·옥 등으로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단이나 침향은 모두 향기가 있는 나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 생산된다[29]고는 하지만 주로 동남아에서 생산되는 것이 많았으므로[30] 주로 수입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진골을 비롯하여 육두품 이하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재는 추후 살펴볼 마구용 목재 재료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재의 장식 재료 역시 마구용 금속 장식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2) 욕자

褥子[褥者]는 수레 바닥에 까는 요이다. 진골은 綾·絹 이하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두 겹을 넘을 수 없었다. 따라서 왕실에서는 욕자에 능·견보다 고급 소재인 계·수·금·라 등의 고급직물을 소재로 사용할 수 있었고 욕자를 두 겹 이상으로 깔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육두품은 紵·絹 이하의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오두품은 氈·布만을 사용하였다.

(3) 좌자

坐子는 자리에 까는 방석으로 욕자 위에 두었다. 왕실에서는 계·수·금·라·錏錦·능과 같은 소재의 좌자를 사용하며, 그에 상응하는 고급직물로 가장자리 선장식인 緣을 둘렀을 것이다. 진골은 좌자에 전금과 二色綾 이하를 사용하였으며, 錦 이하의 직물로 연을 둘렀다. 육두품은 연이 없는 시·견·포 좌자를 사용하였다. 오두품 좌자의 기록은 없으나 좌자가 없을 수는 없으므로 육두품과 같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헌

幰은 수레 상부를 덮는 휘장 종류이다. 통헌거에는 수레의 전·후면에 헌이

29) 憑虛閣李氏(정양 옮김), 2012『閨閣叢書』, 寶晉齋, 426면.

30) 紫檀, 검색일 2021. 9. 3. 한국학자료센터 https://han.gl/EXwwc.

존재한다. 왕실에서는 계·수·금·라·능의 헌을 사용하였으며, 가장자리 선장식인 연을 둘렀다. 진골은 深青·碧·紫·紫粉 색상의 小文綾·사·시 이하의 헌을 사용하였으며, 연 또한 같은 등급의 직물로 둘렀다. 육두품은 진골 이상의 귀인을 따라갈 때는 헌을 사용하지 않고, 귀인 없이 홀로 수레를 이용할 때에만 竹簾(대나무발)·莞席(왕골자리)으로 된 헌을 사용하였으며 시·견 이하의 연을 둘렀다. 오두품은 가죽이나 삼베로 연을 두른 죽렴·완석의 헌을 사용하였다. 오두품이 헌을 사용하지 않는 기준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육두품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헌을 사용하였을 것이나, 진골 이상의 귀인을 따라갈 때 헌을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바로 상위 계급인 육두품 이상을 따라갈 때 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육두품이 귀족 계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표나 보요를 사용하지 않고, 진골 이상의 상위 신분과 동행할 때 헌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은 진골과 육두품의 신분차를 표면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 낙망

낙망은 수레 상부의 헌 위를 덮는 그물 형식의 장식이다. 진골은 紅·緋·翠·碧 색상의 糸·麻를 사용하였는데, 왕실에서는 진골의 낙망 재료 이상의 고급 재료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육두품은 赤·青 색상의 포를 사용하였으나, 오두품은 낙망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장표

粧表는 수레의 겉장식을 가리키는데, 왕실과 진골은 수레의 겉장식이 가능한 반면, 육두품 이하는 겉장식이 불가하였을 것이다. 진골은 견·포의 장표에 紅·緋·青·縹 색상을 사용하였다. 왕실에서는 진골보다 고급 재료와 장식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꾸몄을 것이다. 헌과 낙망의 경우와 같이 장표에도 사용 재료의 색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최상위 신분 수레의 물품은 적색계와 청색계의 두 가지 색상 계열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늑

勒은 소나 말에 씌우는 굴레이다.[31] 거기 조에서는 우륵으로 기록된 바, 수레를 끄는 소의 굴레를 가리킨다. 왕실에서는 능·사 이상의 늑을 사용했을 것이다. 진골은 시·견·포를 사용하였고, 육두품은 포를 사용하였으며, 오두품은 늑을 사용하지 않았다.

(8) 앙

鞅은 소의 가슴에 걸어 매는 가슴걸이(뱃대끈)이다.[32] 왕실에서는 능·사 이상의 앙을 사용하였을 것이며, 진골은 시·견·포를 사용하였다. 육두품은 포를 사용하였고, 오두품은 마로 된 앙을 사용하였다.

(9) 환

環은 수레와 소의 장식 고리이다. 왕실에서는 금·은·鍮石(황동)을 사용하였다. 진골은 금·은·유석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鍮(청동)[33]·銅(구리)·鐵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육두품은 유·동·철로 된 환을 사용하였으며, 오두품은 水鐵(무쇠)을 사용하였다.

(10) 보요

보요는 움직일 때 흔들리는 장식의 일종이다. 말의 장식구인 馬鈴에서 유추하여 소의 목 아래 늘어뜨리는 방울(워낭)로 보는 견해도 있다.[34] 유물이나 회화

31) 『說文解字』 卷4, 革部 "勒 馬頭絡銜也 從革力聲."; 『釋名』 釋車 "勒 絡也 絡其頭而引之也."

32) 『說文解字』 卷4, 革部 "鞅 頸靼也 從革央聲."; 『釋名』 釋車 "鞅 嬰也 喉下稱嬰 言纓絡之也 其下飾曰樊纓 其形樊樊而上屬纓也."

33) 신라의 鍮는 구리·아연의 합금인 鍮石(황동, 놋쇠)과는 다른 개념으로, 구리·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구리·주석의 합금에 '鍮'자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 중국, 일본과 구분되는 신라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신라 내부에서 귀금속으로 여겨지며 수입하는 유석은 자체 생산이 가능한 유(鍮銅·鍮鐵)와는 구분되었다. 김민수, 2019 「신라의 鍮石 인식과 그 특징」 『한국고대사연구』 96, 290면.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 권33, 「잡지」 제2 車騎, 진골의 수레에 대한 규정, 註 076, http://db.history.go.kr/id/sg_033r_0030_0010.

에서 방울 형태의 장식은 보이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보요는 단지 여성의 머리 장식[35]과 유사한 형식으로 수레 상단 귀퉁이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실에서는 금・은・유석을 보요로 사용하였으며, 진골은 유・동・철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반면 육두품과 오두품은 보요를 장식하지 않았다.

3. 『삼국사기』 거기 조 마구 기록 분석

1) 통일신라시대 마구의 형태와 구성

『삼국사기』 거기 조에는 신분과 성별에 따른 마구의 금제가 확인된다. 통일신라시대의 말은 재산이자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로서 진골에서 평인까지 탑승자의 신분에 따라 마구의 장식을 달리하였다. 동양에서 말을 부리는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신당서』 王求禮傳에는 "軒轅 이래로 소를 길들이고 말을 탔다"고 전한다.[36] 고대의 말은 재산 가치로 평가되었는데,[37] 신라에서도 상・벌・조공의 용도로 말을 사용하였다.[38]

중국 先秦時代의 말은 주로 마차를 끄는 데 사용하였으며 말을 타는 경우는 드물었다. 남북조시대 이전까지도 귀족층 남성은 말을 타지 않고 마차를 탔는데,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 말을 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귀족층이 승마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마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였는데, 鐙子(발걸이)가 발명되고 초기의 單鐙子가 雙鐙子로 발전되고 나서야 비로소 승마 기술이 보편화되었다.[39] 또한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전쟁

35) 黃輝, 2011『中國歷代服制服式』, 南昌: 江西美術出版社, 66면.

36) 『新唐書』 列傳 卷112, 列傳 37 王求禮 "自軒轅以來 服牛乘馬 今輦以人負 則人代畜."

37) 신라장적의 등재는 차례대로 烟戶・人・馬・牛・畜・田・麻田・桑・柏子木・秋子木의 순서이다. 장적의 등재 순서가 사람, 말, 소 등의 순서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대 재산으로서의 말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김정숙, 2003「신라 사회에서 말의 사육과 상징에 관한 연구」『한국사연구』 123, 36면.

38) 위의 논문, 23면.

39) 孫机, 2016『載馳載驅: 中國古代車馬文化』, 上海: 上海古籍, 126면.

이 빈번히 일어나 戎服을 자주 입게 되자 승마에 익숙해진 귀족이 늘어났으며, 唐代에는 대부분의 귀족과 일반 庶人들이 수레 대신 말을 타게 되었다.[40]

마구는 말을 부리기 위한 장비와 도구를 통칭하는 것인데, 마구 구성품은 초기에 사용한 재갈부터 안장, 등자와 같은 순서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개발되었다.[41] 마구는 용도에 따라 制御具, 安定具, 裝飾具, 戰馬具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어구는 말을 직접 다루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재갈, 고삐가 포함된다. 안정구는 말 위에서 승마자의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도구로 안장, 등자가 대표적이다. 장식구는 말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杏葉, 雲珠 등이 있다. 전마구는 전쟁 시 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서 馬冑, 馬甲 등이다. 제어구, 안정구, 장식구는 三繫라고 불리는 굴레[勒]·가슴걸이[靽]·후걸이[鞦]에 의해 말에 장착된다.[42] 〈그림 10〉[43]은 마구의 구성과 명칭을 간략히 나타낸 그림이다.

신라 금령총에서 출토된 기마인물형 토기(6세기 초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그림 11)를 통해 당시 신라의 마구를 살펴볼 수 있다. 기마인물형 토기는 마구를 갖춘 말에 탑승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승마자는 각각 주인과 하인으로 추정된다. 말 안장은 목재를 기본틀로 하여 前輪(앞가리개)과 後輪(뒷가리개)이 있는 高橋鞍(높은다리안장)[44]이다. 등자는 앞이 막히지 않은 고리형(輪鐙)[45]이다. 하인의 말에는 고삐와 등자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부서져 유실된

40) 우런수(김의정 외 옮김), 2019『사치의 제국』, 글항아리, 104-105면;『舊唐書』卷45, 志第25「輿服」"斯則鞍馬之設, 行於軍旅, 戎服所乘, 貴於便習者也. 案江左官至尙書郎而輒輕乘馬, 則爲御史所彈. 又顔延之罷官後, 好騎馬出入閭里, 當代稱其放誕. 此則專車憑軾, 可擐朝衣, 單馬御鞍, 宜從褻服." 당대에는 수레를 타고 수레의 앞턱을 짚을 때는 朝衣를 입고, 안장을 얹은 말을 탈 때는 褻服을 입었다.

41) 김두철, 2001『韓國 古代 馬具의 硏究』, 東義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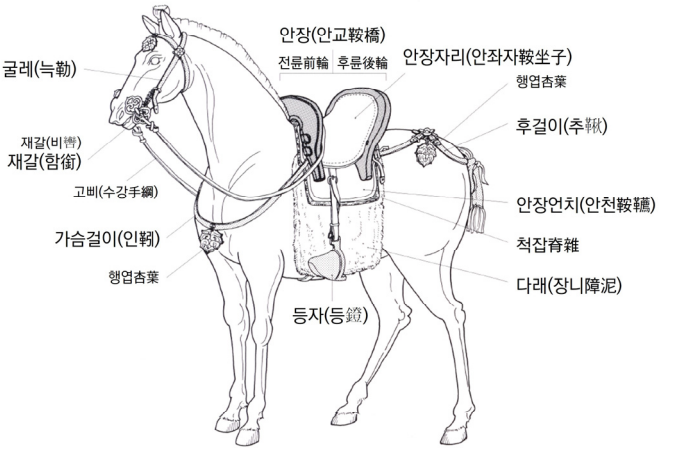
42) 위의 논문, 20-21면; 여주박물관, 2014『여주 말을 품다』, 32-65면.

43) 奈良國立博物館, 2006『第58回 正倉院展 目錄』, 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50면. 마구 구성에 대한 그림 자료는 제58회 정창원전 전시 도록에서 발췌하였으며, 마구 구성품의 각 명칭은 한국어로 변경하여 기입하였다.

44) 高橋鞍이라는 전문 명칭은『初學記』「魏百官名」기록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45) 등자는 주머니형 壺鐙과 고리형 輪鐙으로 나눌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부분 고리형 등자를 사용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일부 주머니형 등자가 유행하였다.

것으로 추정된다. 주인과 하인의 마구를 비교할 때, 주인 말의 안장 전륜·후륜에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가슴걸이·후걸이에 마령과 행엽의 장식이 더해져 더욱 장식적이다.



〈그림 10〉 마구의 구성과 명칭

〈그림 11〉 신라 금령총, 기마인물형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12〉 당 순마 도용 (中国国家博物馆 소장)

〈그림 13〉 당삼채 마용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마구의 형태는 동시대 중국의 유물과 회화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46]는 말을 길들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唐代의 馴馬 陶俑(中国国家博物

여주박물관, 앞의 책, 49면.

46) 中国国家博物馆, 2017『中華文明』, 北京: 中国国家博物馆, 568면.

館 소장)으로 안장에서 이어진 등자와 넓은 장니, 가슴걸이와 후걸이의 행엽 장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각형의 넓은 장니는 신라 금령총 기마인물형 토기(그림 11)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안장 위에는 보자기 형태의 鞍袱(鞍帕)을 씌웠는데, 안장을 얹은 뒤 말을 타지 않을 때는 안복을 씌워 먼지를 피했다.[47] 〈그림 13〉[48]의 唐三彩 馬俑(8세기, 京都國立博物館 소장)에서도 동일한 마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만 후대로 갈수록 장니의 형태가 간소화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49] 또한 당삼채 마용의 안복을 통해 문양이 있는 화려한 직물도 안복의 재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마구에서 안복의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 안복의 실용적인 측면과 당과의 활발한 교류를 생각할 때 사용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2) 마구의 신분별 허용 재료

『삼국사기』 거기 조에 나타난 마구의 금제 대상 물품은 鞍橋, 障泥, 銜, 鐙, 鞍坐子, 鞍韉, 脊雜, 鞦鞦의 8종이다. 마구의 금제 기록을 허용 재료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표 2〉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기록에 없는 왕실의 사용 가능 재료를 추정하여 포함시켰다.

〈표 2〉 신분별 가용 마구 재료(『三國史記』 卷33, 「雜志」 2 車騎)

	王室	眞骨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平人
鞍橋	• 用紫檀沉香 • 用黃楊槐柘 • 飾金銀玉	• 用黃楊槐柘 • 飾金銀玉	-	-	-
障泥	• 用麻油染	• 用麻油染	• 用麻油染	• 用麻油染	• 用楊竹
銜	• 用金銀鍮石 • 飾金銀玉	• 用銀 • 飾銀	• 用鐵	• 用鐵	• 用鐵
鐙	• 用金銀鍮石 • 飾金銀玉	• 用銀 • 飾銀	• 用鐵	• 用鐵	• 用水鐵

47) 張鑫, 2014 「唐乾陵石仗馬的馬具与馬飾: 兼談御馬与仗馬」 『文博』 3, 陕西: 陕西省文物局, 44면.

48) 唐三彩馬俑, 검색일 2020. 12. 30. 京都國立博物館 https://han.gl/8i1Bi.

49) 中國古代馬具, 검색일 2020. 12. 30. 中国人民革命軍事博物馆 https://han.gl/DHFQQ.

	王室	眞骨	六頭品	五頭品	四頭品·平人
鞍坐子	• 用罽繡錦羅	• 用錦綿紬紵布皮	• 用綿紬紵布皮	• 用皮	• 用皮
鞍韉	• 用罽繡錦羅	• 用皮	• 用皮	• 用皮	• 用牛馬皮
脅雜	• 미사용	• 미사용	• 미사용	• 미사용	• 미사용
靿靼	• 用組及紫條	• 用皮麻	• 用皮麻	• 用麻	• 用筋麻
	王室女	眞骨女	六頭品女	五頭品女	四頭品女·平人女
鞍橋	• 用紫檀沉香 • 用黃楊槐柘 • 飾寶鈿 • 飾金銀玉	• 用紫檀沉香 • 飾金銀玉	• 用黃楊槐柘 • 飾銀	• 用黃楊槐柘	• 미사용
障泥	• 用皮	• 用皮	• 用皮	• 用皮	• 用皮
銜	• 用金銀鍮石 • 飾金銀玉	• 用銀鍮石 • 飾銀	• 用鐵	• 用鐵	• 用鐵
鐙	• 用金銀鍮石 • 飾金銀玉	• 用銀鍮石 • 飾銀	• 用鐵	• 用鐵	• 用鐵
鞍坐子	• 用罽繡錦羅	• 用繡錦	• 用綾 • 用虎皮	• 用綾 • 用牛馬皮	• 用牛馬皮
鞍韉	• 用罽繡錦羅 • 用虎皮	• 用繡錦 • 用虎皮	• 用綾 • 用虎皮	• 用綾 • 用皮	• 用皮
脅雜	• 用罽繡錦羅	• 用錦	• 用綾紵絹	• 미사용	• 미사용
靿靼	• 用組紫條 • 雜金銀絲	• 用組紫紫粉暈條	• 用紫紫粉暈條	• 用條皮 • 禁組紫紫粉暈條	• 用條皮 • 禁組紫紫粉暈條

(1) 안교

鞍橋는 말 안장으로 말의 등을 보호하며, 말 등과 승마자 사이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기본틀은 목재이고 신분에 따라 보패의 장식이 가해졌다. 왕실 남성은 자단과 침향을 안교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금・은・옥 등으로 안교를 장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골은 자단과 침향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黃楊(회양목)・槐(홰나무)・柘(산뽕나무)를 재료로 사용하며 금・은・옥으로 안교를 장식할 수 있었다. 육두품 이하는 진골 이상이 사용하는 자단・침향・황양・괴・자와 같은 목재를 사용할 수 없었고, 금・은・옥의 보패 장식도 불가하였다.

한편 왕실 여성은 왕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단과 침향을 안교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寶鈿・금・은・옥 등으로 안교를 장식할 수 있었다. 진골녀는 진골남과 달리 자단과 침향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금・은・옥으로 장식할 수 있

었으나 보전을 이용한 장식은 불가하였다. 육두품녀와 오두품녀는 자단·침향을 사용할 수 없고 금·옥으로 장식할 수도 없었으나, 같은 신분의 남성과는 달리 황양·괴·자를 안교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사두품녀 이하는 자단·침향·황양·괴·자와 같은 목재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보패의 장식도 불가하였다.

자단과 침향은 귀한 목재로서 마구와 같은 소형 물품에는 진골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수레의 재료와 같이 많은 양이 사용될 때는 왕실에 한정하여 사용하였다. 마구에서는 여성의 안교가 남성의 안교에 비해 고급 재료의 허용도가 높으며 장식적이다. 즉, 장식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완화된 금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복식 금제의 경우와 일맥상통한다.

(2) 장니

障泥는 말이 달릴 때 흙이 튀지 않도록 막는 장치로 일명 다래라고 하며, 좌우로 한 쌍을 달게 된다. 오두품 이상은 麻油染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죽 장니에 마유를 먹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두품과 평인은 楊(버드나무)과 竹(대나무)을 사용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모든 신분에서 가죽 장니를 사용할 수 있었다.

(3) 함

銜은 말을 조종하기 위해 말의 입 속에 물리는 재갈이다. 재갈을 뜻하는 단어로는 轡가 있는데, 비는 함을 포함하여 고삐 연결을 위한 부속품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재갈인 반면, 함은 좁은 의미의 재갈이라 할 수 있다.[50]

왕실 남성은 금·은·유석을 함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금으로 도금하거나 옥으로 장식할 수 있었다. 진골은 금·유석을 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금으로 도금하거나 옥으로 장식하는 것이 불가하였다. 은으로 된 함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금은새김[金銀鍍鏤] 장식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두품 이하는 금·은·유석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금은새김과 옥 장식 또한 불가하였고, 철제 함을 사용하였다.

왕실 여성은 금·은·유석의 함을 사용하였으며 금으로 싸거나, 도금하거나

50) 김두철, 앞의 논문, 29면.

옥으로 장식할 수 있었다. 반면 진골녀는 함을 금으로 쌀 수 없으며 옥 장식이 불가하였으나, 진골과 마찬가지로 은으로 된 함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육두품녀는 금·은·유석으로 된 함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금은새김이나 옥 장식도 불가하였다. 오두품녀 이하는 금·은·유석의 사용과 금·은·옥을 이용한 장식이 불가하였고 철제 함을 사용할 수 있었다.

(4) 등

鐙은 일반적으로 등자라고 일컫는 발걸이인데 기본재료는 함과 같은 금속이며 신분별 사용 가능한 재료 역시 함과 같았다.

(5) 안좌자

鞍坐子는 안교 위에 까는 깔개로서 鞍褥이라고도 한다. 왕실 남성은 제한이 없었으나 진골은 계·수·라 대신 금 직물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육두품과 오두품은 면·주·시·포·피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두품 이하는 가죽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왕실 여성은 안좌자의 제한이 없었으며, 진골녀는 계·라의 사용이 불가한 대신 수·금·虎皮 등을 사용할 수 있었다. 육두품녀는 계·수·금·라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호피 등으로 된 안좌자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오두품녀 이하는 포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6) 안천

鞍韉은 안교를 올리기 전 말 등 위에 까는 언치이다. 왕실 남성은 계·수·금·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진골 이하는 계·수·금·라의 사용이 불가하였고 가죽을 사용하였다. 왕실 여성은 제한이 없었으나, 진골녀는 계·라의 사용이 불가하였고 수·금·호피 등은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에 육두품녀 이하는 모두 계·수·금·라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오두품녀 이하는 호피의 사용 또한 불가하였다.

(7) 척잡

脊雜은 안천 아래에 말 잔등을 덮는 깔개로, 韉脊으로도 이른다. 남성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척잡에 사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왕실 여성은 계·수·금·라를 사용하였으며 진골녀에게는 금의 사용이 허용되었다. 육두품녀에게는 능·시·견 등의 견직물을 허용하였으나 오두품녀 이하는 척잡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인추

靭鞦는 말의 가슴걸이[靭]와 후걸이[鞦]를 가리킨다. 왕실의 남성과 여성은 金銀絲의 넓은 끈[組]과 자색 좁은 끈[絛]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진골은 자색 외의 좁은 끈[絛]이나 가죽을 사용할 수 있었다. 육두품은 가죽[皮]과 삼끈[麻]을, 오두품은 삼끈을, 사두품 이하는 힘줄[筋]이나 삼끈[絞]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진골녀와 육두품녀는 넓은 끈[組]이나 紫·紫粉 暈染織의 좁은 끈[絛]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오두품녀 이하는 자색계열 외의 좁은 끈[絛], 가죽, 삼끈[絞] 등의 인추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른 물품에 비해 인추에서 각 신분별 사용 재료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의 인추에 상급 재료와 화려한 장식을 허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수레·마구와 복식의 신분별 금제 고찰

1) 수레·마구와 복식의 신분별 재료 비교

거기 조의 수레와 마구의 금제에 나타나는 재료는 〈표 3〉과 같이 목재, 보패, 금속, 직물, 피혁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된 재료는 색복 조에 기록된 복식의 물품과 비교할 수 있다.

〈표 3〉 수레와 마구 물품에 사용된 재료

재료		사용 물품	사용 재료
목재	수레	車材, 幰	紫檀, 沉香, 竹簾, 莞席
	마구	鞍橋, 障泥	紫檀, 沉香, 黃楊, 槐, 柘, 楊, 竹
보패	수레	車材, 環, 步搖	玳瑁, 金, 銀, 玉
	마구	鞍橋, 銜, 鐙, 靽鞦	寶鈿, 金, 銀, 玉, 雜金銀絲 (裹金, 綴玉, 鍍金銀, 鏤金銀, 飾金銀)
금속	수레	環, 步搖	鍮石, 鍮, 銅, 鐵, 水鐵
	마구	銜, 鐙	鍮石, 鐵, 水鐵
직물	수레	褥子, 坐子, 幰, 絡網, 粧表, 勒, 鞅	(闕 · 繡 · 錦 · 羅), 細錦, 綾, 紗, 紵, 絹, 氈, 布, 麻, 糸
	마구	鞍韉, 鞍坐子, 脊雜, 靽鞦	闕, 繡, 錦, 羅, 總羅, 綾羅, 綾, 紵, 絹, 麻
피혁	수레	幰(緣)	皮
	마구	鞍韉, 鞍坐子, 靽鞦, 障泥	皮(虎皮, 牛皮, 馬皮), 麻油染(피혁가공제)

※『三國史記』 卷33, 「雜志」 2 車騎.

(1) 목재

목재는 수레 물품 중 거재와 헌의 일부, 마구 물품 중 안교와 장니에 사용되었다. 자단과 침향은 최고급 목재로 여겨져 주로 왕실에서만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황양(회양목) · 괴(홰나무) · 자(산뽕나무)도 고급 목재로서 진골과 오두품녀 이상의 안교에 사용되었다. 죽렴과 완석은 육두품과 오두품의 헌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양(버드나무)과 죽(대나무)은 사두품과 평민의 장니에서만 확인되었다.

최상위층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단과 침향은 통신신라시대의 대표적 외래 교역품이다. 신라 흥덕왕대는 청해진 설치를 통해 張保皐(?~841 추정)가 동북아의 해상권을 장악한 시기이다.[51] 삼국시대에는 토산품 위주의 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청해진 시대에 이르러 당 · 일본 · 이슬람과의 해상무역이 활발하였다. 교역품의 대부분은 귀족의 사치품과 특산품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이슬람과의 교역을 통해 자단 · 침향 · 翡翠毛 · 瑟瑟 · 玳瑁 · 毯氈 · 유리 기물 등을 수입하였다.[52]

51) 신라 제42대 흥덕왕은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로 임명하였다. 장보고는 현재의 완도 지역인 청해진을 기반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해양 무역 항로를 개척하였다.

자단은 旃檀木의 일종으로 재질이 단단하고 유분이 풍부하며 질감이 좋은 목재이다. 또한 향을 가지며 검붉은 빛이 주는 중후함이 있어 고급 예술작품의 재료가 되었다. 자단은 단단한 목질의 특성으로 인해 가구・가마・불교 물품 등의 제작에 사용되었으나, 큰 재료가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는 작은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자단은 불교적 함의가 담겨 신성시되는 최상등품의 목재로 인식되었기에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일반 백성들은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53]

침향은 나무의 형태가 양(버드나무)을 닮았는데 그윽한 향과 붉은빛, 고운 질감으로 인해 가구 등에 사용되는 고급 목재였다. 향목으로 사용되는 침향은 蜜香樹로 일컫는데 주로 향으로 사용되며 全淺香이라고도 하였다.[54]

수레의 행차 시 탑승자의 지위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재에 왕실만이 자단과 침향을 사용함으로써 진골과의 확실한 차이를 두었다. 진골의 수레에는 고급 보패(대모・금・은・옥)의 장식도 불가하였으므로 왕실과 진골의 차등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자단과 침향은 향을 품은 목재로서, 고대부터 향의 사용은 왕실에 버금가는 최상위층만이 사용 가능하였다는 것 또한 주목할 점이다.

(2) 보패

보패는 수레의 장식(거재 장식, 환, 보요)과 마구의 안교 장식, 함, 등, 인추에 사용되었다. 왕실에서는 수레의 장식에 금・은・옥・대모와 같은 보패 장식이 가능하였으나, 진골 남녀부터는 고급 보패 장식이 불가하였다. 마구의 안교 장식은 수레 장식에 비해 규제의 범위가 다소 완화되어 진골 남녀까지 금・은・옥

52) 崔孝錫, 2005「한국 고대무역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34면.

53) 李五雄, 2020「淺談紫檀雕刻藝術文化」『天工』 5, 山西: 山西科技新聞出版傳媒集團有限責任公司, 70면; 顔光輝, 2020「紫檀木雕作品的雕刻藝術及体現手法探究」『天工』 5, 山西: 山西科技新聞出版傳媒集團有限責任公司, 72면; 강희정, 2019「물질의 전래와 불교신앙」『한국상고사학회 제50회 학술대회 논문집』, 186면.

54) 南方草木狀, 검색일 2021. 1. 14. 維基文庫 https://han.gl/zFRIx.

장식이 가능하였다. 함과 등의 경우에는 왕실에서만 금·은·옥을 사용할 수 있었고, 진골 남녀는 은 이하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육두품 남녀 이하는 철제를 사용하였다. 마구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 경향성을 보인다.

〈표 4〉 색복 조 복식과 거기 조 수레·마구의 보패 사용 비교

	복식 금제			복식 재료	수레 물품	마구 물품
보패	男	腰帶	眞骨…腰帶禁研文白玉	玉	車材	鞍橋, 銜, 鐙
		靴帶	眞骨…靴帶禁隱文白玉	玉	車材	鞍橋, 銜, 鐙
	女	釵	眞骨女…釵禁刻鏤及綴珠 六頭品女…釵禁純金以銀刻鏤及綴珠 五頭品女…釵用白銀已下 四頭品女…釵禁刻鏤綴珠及純金	金, 銀, 珠	車材, 環, 步搖	鞍橋, 銜, 鐙
		裙	眞骨女…裙禁罽及繡用金銀絲孔雀尾翡翠毛者	金絲, 銀絲	-	靽鞦
		帶	六頭品女五頭品女…帶禁以金銀絲孔雀尾翡翠毛爲組	金絲, 銀絲	-	靽鞦

※『三國史記』 卷33, 「雜志」 2 色服 · 車騎.

수레와 마구에 사용된 보패류는 복색 금제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腰帶·靴帶와 여성의 머리 장신구인 釵, 여성 복식의 裙·帶에서 사용된 보패류와 비교할 수 있다(표 4). 왕실 남성은 요대와 화대에 백옥을 사용하였으나, 진골은 무늬 있는 백옥의 요대가 불가하였으며 화대 또한 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왕실 여성은 금·은·구슬로 된 채를 사용하였으나, 진골녀는 금·은만을 사용할 뿐 구슬로 채를 장식할 수는 없었다. 오두품녀 이하는 백은 이하의 채를 사용하였다. 왕실 여성의 표·대에만 사용한 금은사는 마구의 인추에서도 왕실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물리적 속성으로 인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급 보패로 인식되는데, 은과 함께 신라 하대에서 왕실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옥 또한 최고급 보패로 여겨져 왕실에서 사용하였다. 일찍이 옥은 동양에서 천자의 상징으로 보았는데, 『禮記』 「玉藻」에서는 옥으로 德을 비교한다

고 하여, 신분에 따라 사용하는 옥의 종류에 차등을 두었다.[55] 보패의 경우에도 금·은·옥과 같은 최고급 재료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차등이 왕실과 진골 사이에 명확히 구분된다.

(3) 금속

금속은 수레의 환, 보요로 사용되었으며, 마구의 함, 등 재료로 사용되었다. 수레의 환, 보요는 왕실에서만 보패류를 사용한 반면 진골은 유·동·철의 금속류 재료를 사용하였다. 마구는 육두품 남녀부터 모두 철제 함·등을 사용하였다.

금속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석과 유의 구분이 필요하다. 신라에서 유석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황동(놋쇠)을 가리키는 반면에 유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을 가리킨다.[56] 유석은 신라의 자체 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에 의존하였으며 귀금속으로 여겨졌는데, 수레 장식인 환과 보요에도 왕실에서만 유석을 사용할 수 있었다.

〈표 5〉 색복 조 복식과 거기 조 수레·마구의 금속 사용 비교

	복식 금제			복식 재료	수레 물품	마구 물품
금속	男	腰帶	六頭品…帶只用烏犀鍮鐵銅 五頭品…腰帶只用鐵 四頭品…腰帶只用鐵銅 平人…帶只用銅鐵	鍮, 鐵, 銅	環, 步搖	銜, 鐙
		靴帶	六頭品…靴帶用烏犀鍮鐵銅 五頭品…靴帶只用鍮鐵銅 四頭品…靴帶只用鐵銅 平人…靴帶只用鐵銅	鍮, 鐵, 銅	環, 步搖	銜, 鐙
	女	釵	平人女…釵用鍮石已下	鍮石, (鍮, 鐵, 銅)	環, 步搖	銜, 鐙

※『三國史記』卷33,「雜志」2 色服 · 車騎.

수레와 마구에 사용된 금속류는 색복 조 복식 금제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요대

55)『禮記』「玉藻」"君子無故玉不去 身君子於玉比德焉. 天子佩白玉而玄組綬, 公侯佩山玄玉而朱組綬, 大夫佩水蒼玉而純組綬, 世子佩瑜玉而綦組綬, 士佩瑲玟而縰組綬."

56) 주 33) 참고.

·화대, 여성의 채에서 사용된 금속류와 비교할 수 있다(표 5). 육두품 이하의 요대와 화대는 유·철·동을 사용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평인녀도 값비싼 유석의 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함·등의 마구와 남성 복식의 요대·화대는 육두품부터 금속류만 사용하였는데, 진골의 경우 수레보다 소규모인 착장물(마구, 복식)에 대해 좀 더 완화된 금제 규정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57]

(4) 직물

직물은 수레의 욕자, 좌자, 헌, 낙망, 장표, 늑, 앙에 사용되었으며, 마구 중 안천, 안좌자, 인추, 척잡에 사용되어 가장 다양한 물품의 재료로 활용되었다.

색복 조의 복식 금제를 통해 통일신라시대에 복식 재료로 사용된 직물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치 순으로 罽·繡·錦·羅·綾·紗·絁·絹·綿紬·布와 같이 나타난다.[58] 특히 계·수·금·라는 최상급의 직물로서 대개의 품목에서 왕실에서만 사용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진골녀의 일부 품목에도 사용할 수 있었다.[59] 이러한 직물 사용의 경향성은 수레와 마구의 직물 사용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수레의 금제 기록에서 계·수·금·라의 직접적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골이 욕자, 좌자, 헌에서 능 이하의 직물을 사용하며, 장표, 늑, 앙에서 시·견·포에 상응하는 직물을 사용한 규정으로 보아, 왕실에서의 능 이상 직물인 계·수·금·라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마구의 금제에서 왕실의 남녀는 안천과 안좌자에 계·수·금·라를 사용한 반면 진골 이하의 신분에서는 하급의 직물 또는 가죽을 사용하였다. 진골녀의 경우 안천과 안좌자에 계·라를 제외한 수·금의 직물은 사용할 수 있었다. 안천

57) 진골은 수레의 물품에는 금·은·옥·유석과 같은 사치품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마구와 복식의 물품에는 일부(마구의 안교 등)에 한해 보패류 장식이 가능하였다.

58) 金鎭玖, 앞의 논문, 186면; 朴南守, 2011「신라의 衣生活과 織物 생산」『한국고대사연구』 64, 469면. 박남수(2011)는 신라의 의생활과 직물 생산에 대한 연구에서 직물의 순서를 상위 직품부터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罽繡(罽繡羅·罽繡錦羅·罽繡錦)·羅(布紡羅·總羅·野草羅·乘天羅·越羅·羅)·[金銀泥·纈]·綾(中小文綾·小文綾·綾)·絁·[紗(?)]·絹·綿紬·紬.

59) 『三國史記』 卷33, 「雜志」 第2 色服.

과 안좌자의 금제에서 여성의 경우 평인녀에 이르기까지 계·수·금·라의 금지 사항이 기록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사치풍조의 일면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복식이 남성에 비해 장식적이고 화려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물품에서 사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점이 복식과 마구의 금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 피혁

피혁은 수레 헌의 가장자리 연 일부와 마구의 안천, 안좌자, 인추, 장니에 사용되었다. 수레 물품에서 오두품 헌의 연으로만 가죽이 사용되었다.

안천과 안좌자, 인추, 장니에서 피혁은 모든 신분의 남녀가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직물류에 비해 가치가 낮은 재료로 인식되었으므로 직물을 해당 물품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혁을 사용하지 않았다. 피혁에는 虎皮, 牛皮, 馬皮 등이 사용되었는데, 호피는 가죽 중에서도 가장 고급 재료였으며 오두품녀 이하의 마구 물품에서 사용을 금지하였다. 안좌자는 안천의 위에 두어 사람과 직접적으로 닿는 물품이므로 안천보다 안좌자에 좀 더 상급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장니는 평인 남성을 제외하고 모두 가죽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남성의 장니에는 麻油染을 통해 방수 처리를 하였다.

〈표 6〉 색복 조 복식과 거기 조 수레·마구의 피혁 사용 비교

	복식 금제			복식 재료	수레 물품	마구 물품
피혁	男	靴	眞骨…靴禁紫皮 六頭品…靴禁烏縠皺文紫皮 四頭品平人…靴禁烏縠皺文紫皮	皮	幰(緣)	鞍韉, 鞍坐子, 靿靼, 障泥
		履	眞骨…履任用皮絲麻 六頭品…履只用皮麻 五頭品…履用皮麻 四頭品…履用牛皮麻已下 平人…履用麻已下	皮	幰(緣)	鞍韉, 鞍坐子, 靿靼, 障泥
	女	履	眞骨女…履…禁罽繡羅 六頭品女…履禁罽繡錦羅繐羅 五頭品女…履但用皮已下 四頭品女…履用皮已下	皮	幰(緣)	鞍韉, 鞍坐子, 靿靼, 障泥

※『三國史記』 卷33, 「雜志」 2 色服 · 車騎.

수레와 마구에 사용된 피혁류는 색복 조 복색 금제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靴·履와 여성의 리에서 사용된 피혁류와 비교할 수 있다(표 6). 남성의 화는 대개 가죽을 사용하였는데 신분에 따라 색상과 문양으로 차등을 두었다. 남성의 리는 진골에서 사두품까지 가죽과 더불어 마와 같은 직물을 사용하였다. 반면 여성의 리는 남성의 리에 비해 좀 더 좋은 재료가 허용되었다. 남녀의 사용 가능 재료의 차이는 인추에서도 나타나는데 육두품 이하의 남성의 인추는 가죽 이하의 재료만 허용하는 반면, 동일 신분 여성의 인추에는 직물로 된 끈의 사용이 가능하였다.

2) 신분별 금제를 통한 통일신라시대 사회상 고찰

고대 동양의 역사 속에서 금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금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신분 질서 확립의 목적과 사치 풍조 억제의 목적이다.[60] 신라 834년 흥덕왕의 금제도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반포되었다. 인접 시기인 唐代에도 車服, 음식, 가옥, 혼인, 喪葬, 종교, 연회 등의 다양한 범주에 대한 금제가 발효되었으며, 점차 규정이 세밀해지고 범위가 확대되었다.[61] 특히 당 문종은 즉위 원년(827)부터 여러 차례 금제를 발효하였는데, 흥덕왕의 금제는 이를 참고하여 마련되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62] 금제는 예의 실현이라는 大義 안에서 사치 억제라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신분제의 공고화와 제왕의 통치권 강화를 목적으로 두었다.

(1) 금제와 신분 질서 확립

기물은 사회 속에서 관습화되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며 상징성을 부여받는

60) 복식 금제는 금제 중 가장 대표적인 금제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복식문화사 속 금제의 목적은 신분표시를 위한 금제, 사치금압을 위한 금제, 외교관계로 인한 금제, 음양오행설과 전통습속에 기인한 금제로 분류할 수 있다. 朴保英, 1992「韓國 服飾文化史에 나타난 禁制 考察」,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7면.

61) 姚佳瑾, 2019「唐代奢侈消費禁令」, 上海市: 上海師范大學 碩士學位論文, 1-72면.

62) 武田幸男, 1975「新羅興德王代の色服·車騎·器用·屋舍制」『榎一雄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東京: 山川出版社, 311-328면.

다. 형태와 색상 등을 통해 추상적 함의는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사회적 계급이 발생한 이래로 기물은 계급에 따른 구별을 반영하여 존비귀천을 구분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고대 동양의 봉건제도 하에서는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특정한 기물이 존재하였으나, 이후에는 거마와 복식, 가옥 등이 신분의 상징으로 대체되었다.[63] 따라서 신분별 거마와 복식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가 정립되었으며, 이는 史書에 여복지 기록으로 남아있다.

흥덕왕이 금제를 반포할 당시의 신라 하대는 골품제가 무너진 시기였다. 신라 상대부터 골품제는 신분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관료제와 더불어 상호견제와 조화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이르러 관료제는 진골의 독점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흥덕왕대 전후로 왕위쟁탈전이 심화되어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었다.[64]

이러한 사회정치적 배경으로 인하여 흥덕왕은 개혁정치를 통해 전제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였는데, 특히 진골의 견제를 위하여 육두품의 정치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신라 하대의 육두품은 진골의 정치적 독점으로 인하여 학문과 종교 방면으로 출구를 모색하였는데, 일부는 당으로 유학하여 선진 지식을 흡수하였다. 신라로 귀국한 육두품 대당 유학생들은 흥덕왕의 지원에 힘입어 당시 신라의 변혁에 주요 역할을 하였다. 한편 당시 신라 하대의 진골은 사병을 거느리며 막대한 힘을 축적한 상태였으므로, 세력 유지를 위해 육두품의 정치적 진출을 지속적으로 견제하였다.[65]

흥덕왕의 금제 반포는 이와 같은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금제에는 진골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왕실의 의지와 육두품 이하 계급과의 층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는 진골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같은 기득권층 귀족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진골과의 지속적이고 명확한 차별 대우에 대한 육두품의 불만을 예상할 수 있다.

63) 우런수, 앞의 책, 104-105면.

64) 전혜숙, 앞의 논문, 183면; 金昌錫, 2019「신라 중·하대 골품제의 변화상과 그 배경」『韓國史硏究』184, 133면.

65) 전혜숙, 앞의 논문, 183면.

흥덕왕 금제에서 왕실과 진골의 신분 구별을 뚜렷이 드러내는 부분은 수레의 목재, 마구의 장식을 위한 보패, 계·수·금·라와 같은 고급 직물 사용의 경우이다. 신분을 가장 공식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수레의 행차에서 자단과 침향과 같은 고급 목재는 왕실 남녀에게만 허용되었다. 마구 안교의 장식, 함과 등에도 금·은·옥의 최상급 보패는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수레의 욕자, 좌자, 헌과 마구의 안천, 안좌자에도 왕실에서만이 계·수·금·라에 상응하는 고급 직물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물품 재료의 구분을 통해 왕실과 진골과의 차등을 분명히 하여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는 금제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진골과 육두품의 신분 구별이 드러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레의 거재 장식과 장표, 보요에 대하여 육두품은 해당 물품의 사용이 불가하였다. 수레 헌의 경우에는 육두품이 진골 이상의 귀인을 따라갈 때 헌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육두품은 보패와 직물 대신 가치 등급이 낮은 금속과 피혁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진골과 육두품은 물품의 재료 종류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 물품의 유무로 차등을 두었다. 이러한 차등을 통해 진골의 육두품에 대한 견제와 골품제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육두품은 사회의 분명한 기득권층이었으나 품계 진급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왔는데, 진골과 육두품 기물의 등급 차이는 이러한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골은 크게 드러나는 물품에 대해서는 왕실과의 구별이 엄격했으나, 마구와 복식과 같은 소규모의 착장물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된 금제 규정이 적용되었다. 금제에서 나타나는 왕실, 진골, 육두품의 구별 경향성은 수레, 마구, 복식 금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며 당시의 복잡한 사회상을 함축한다.

(2) 금제와 사치 풍조 억제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로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 개혁을 시행하여 내부 체제를 정비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당과의 왕래를 통해 제도와 문물을 교류하여 사회·문화의 발전을 이루어내었다. 唐代에 유행한 고급 우거가 신라에서도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여타 문헌의 기록과 함께 당과 신라의 활발한 문

화교류를 뒷받침해주는 사실이다.

금제가 반포된 834년은 장보고의 청해진 전성기로서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 당·일본·이슬람과의 교류가 빈번하였다. 외국과의 교역으로 신라에 유입된 고급 수입품은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서인들에게도 전래되었다. 무역과 상업의 발달에 의한 개방적 분위기 속에서 사치 풍조가 성행하였는데, 사치품으로 여겨진 물품들은 점차 일반 서인의 일상품으로 여겨져 사치가 가속화되었다. 흥덕왕 3년(828)에는 빨리 부자가 되는 술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한 자를 유배 보낸 기록이 있는데,[66] 이는 당시의 배금주의적 풍조의 일면을 보여준다.

동시대 당에서도 사회 전반의 사치 소비가 유행하였다. 일찍이 사치 풍조 억제를 위한 금제가 빈번히 시행되었으나, 晩唐[67]에 이르면 사치 소비를 경제 번영의 상징으로 보아 지배층에서는 외려 소비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사치 소비는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하는 풍습이 되어 서인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68]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치 풍조는 당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신라 사회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물은 신분의 표상으로서 드러나는데, 사회적으로 널리 퍼진 사치 풍조로 인해 거마와 복식의 차등 질서가 혼란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골품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으므로 지배층의 입장에서 금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신분별 기물의 사용 가능 재료를 법제화하여 혼란한 사회 분위기와 신분 질서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흥덕왕의 금제에는 거마와 복식에 대하여 각종 수입품과 고급 재료들에 대한 금제가 나타난다. 특히 계·수·금·라와 같은 고급 직물은 전체 신분에 걸쳐 사용 가능 여부를 명시하였다. 자단·침향과 같은 고급 수입 목재와 금·은·옥·

66) 『三國史記』「新羅本紀」第10 興德王 三年夏四月 "漢山州瓢川縣妖人 自言有速富之術 衆人頗惑之. 王聞之曰 執左道以惑衆者刑之 先王之法也. 投畀其人遠島."

67) 明 高棅은 『唐詩品彙』에서 唐을 詩體에 따라 初唐, 盛唐, 中唐, 晩唐의 4기로 구분하였다. 초당은 高祖(武德, 618)부터 睿宗(太極, 712)까지, 성당은 玄宗(開元, 713)부터 代宗(永泰, 765)까지, 중당은 代宗(大曆, 766)부터 敬宗(寶曆, 820)까지, 만당은 文宗(太和, 827)부터 昭宣帝(天祐, 906)까지이다.

68) 姚佳瑾, 앞의 논문, 52-54면.

유석 등과 같은 사치품은 대개 왕실만이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다. 겉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물품은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물품보다 신분별로 더 엄격한 차등을 두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인 계급까지 금제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 물품에 사치가 더 심했던 현상을 반영한다. 여성의 기물과 복식은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 장식적이고 화려하였는데, 금제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감안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물품에 완화된 수준의 금제를 적용하였다.

흥덕왕의 금제를 통해 내재된 사회상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치 억제 목적의 금제는 불안정한 정치적 형국 안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변화의 관성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금제는 소비의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려한 통일신라의 전성기도 저물어갔다.

5. 맺음말

본 연구는『三國史記』車騎 조에 기록된 통일신라시대의 수레와 마구 관련 금제 기록을 통해 신분별 허용 재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밝히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첫째, 신라 하대의 수레는 소가 끄는 고급 우거인데, 최상위 신분의 남녀는 수레 상부 전·후면에 헌이 있는 통헌우거를 이용하였다. 또한 일반적 교통수단으로 남녀 모두 말을 타고 다녔는데, 이를 통해 개방적인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수레와 마구는 금제에 따라 신분별 재료의 차등을 두었다. 수레의 금제 대상 물품은 거재·욕자·좌자·헌·낙망·장표·늑·앙·환·보요의 10종이었고 마구의 금제 대상 물품은 안교·장니·함·등·안좌자·안천·척잡·인추의 8종으로 확인되었다. 각 물품에 사용된 재료는 목재·보패·금속·직물·피혁의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왕실과 진골의 차등을 분명히 하는 금제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

는 금제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레의 목재(자단·침향), 마구 안교 장식·함·등의 보패(금·은·옥), 수레 욕자·좌자·헌과 마구 안천·안좌자의 고급 직물(계·수·금·라)은 왕실 남녀에게만 허용되었다. 하대로 갈수록 강화되는 진골 귀족 세력을 억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견제의 결과는 미비하였다.

넷째, 수레와 같이 대규모로 드러나는 물품에 대해서는 왕실과 진골 사이에 엄격한 차등이 적용되었으나, 마구와 복식의 소규모 착장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제가 적용되었다. 또한 겉으로 확실히 드러나는 물품은 숨겨져 잘 보이지 않는 물품에 비해 더 엄격한 차등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진골과 육두품의 차등을 통해 육두품에 대한 진골의 견제와 신분제 공고화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레의 거재 장식, 장표, 보요에 대해 육두품은 해당 물품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진골 이상의 귀인을 따라갈 때는 헌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보패와 직물 대신 가치 등급이 낮은 금속과 피혁을 물품의 주요 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별은 육두품의 불만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여섯째, 신라 하대에 만연한 사치 풍조는 모든 신분의 남녀 금제 품목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치 소비의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장식성이 강하고 화려한 여성 물품에 대한 사치 가능성을 반영하여 동일한 신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좀 더 완화된 금제가 적용되었다.

흥덕왕 금제의 배후에는 복잡한 사회상을 밝히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신분별 금제의 분석은 신분 간 이해관계의 충돌, 개방적이고 사치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주변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 정황에 대한 충분한 방증이 된다. 더불어 물질문화 변화의 궤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신라 하대의 총체적 시대상 인식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어 : 통일신라, 『三國史記』, 車騎, 금제, 규제, 신분 질서

투고일(2021. 9. 28), 심사시작일(2021. 10. 27), 심사완료일(2021. 11. 11)

〈Abstract〉

A Study of the Regulation on Carts and Harnesses in Unified Silla Period through *Geogi*(車騎) Articles on the *Samguk-sagi*(三國史記)

Kim, Sujin* · Lee, Eun-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ermitted materials for each status through the records of regulations related to carts and harnesses of the Unified Silla period. In this regard, King Hungduk's prohibition can examine through *Geogi*(車騎) articles of the *Samguk-sagi*(三國史記).

First, the highest status used *Tongheon Uger*, which has a cover on the front and rear of the upper part of the cart. In addition, both men and women rode horses as a general means of transportation.

Second, carts and harnesses differentiated materials for each status according to the prohibition. There are ten carts items and eight harnesses items regarding the ban. Materials used in each item can classify into five categories: wood, jewel, metal, fabric, and leather.

Third, prohibition's purpose was to establish royal authority by cla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royal family and *Jingol*.

Fourth, the items exposed on the outside applied stricter differences compared to invisible items.

Fifth, it was intended to strictly apply the status system through the difference between *Jingol* and *Yukdupum*.

Sixth, the trend of luxury was prevalent in prohibited items of all status in men and women. In particular, women showed a greater tendency to consume luxury than men,

* Master Course, Dept. of Content Converg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Research Center for Cultural Industry.

** Professor, Dept. of Content Converg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 in the same status, a more relaxed ban applied to women than men.

Behind King Hungduk's prohibition, some elements reveal a complex social situation. This analysis helps to grasp the trajectory of changes in material culture. Moreover,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the overall Silla era.

Key Words : Unified Silla, *Samguk-sagi*(三國史記), carts and harnesses, prohibition, regulation, status hierarchy